

기업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 ESG 경영	
12차시	국내 ESG 평가기관과 경영지표

1. 국내 ESG 평가기관과 평가지표

가. K-ESG

국내 기업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고 모범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부가 한국형 ESG 평가지표를 만들게 되었다.

1) 구성 방향

가이드라인 방향성은 세 가지 관점이다. 첫째, 기업의 ESG 경영과 평가대응 방향 제시이다. 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ESG 경영 요소가 무엇인지와 평가기관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평가항목을 추출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지표와 공시기준(DJSI, MSCI, EcoVadis, Sustainalytics,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eporting Initiative 등) 등을 분석하여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4개 영역, 27개 범주, 61개 기본 진단 항목을 마련했다. MSCI 평가지표수(1,000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항목을 제공했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주요 평가기관들이 사용하는 공시방법, 사용단위 등 항목별 평가기준 기반의 항목 해설서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해도 제고에 목적을 뒀다.

둘째,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ESG 요소를 제시했다. 각 분야별 전문가와 전문기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기업이 활용 가능한 문항으로 구성했다. 높은 목표가 제시될 경우 시도도 하지 못하고 좌절할 수도 있기에 당장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접근했다. 글로벌 기준 중심의 기본 진단항목과 글로벌 기준에서도 일부 사용되거 있거나 국내 제도에서 중요시하는 ESG 경영 요소를 추가 진단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국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국내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진단항목 개발에서는, 해외 지표와의 연계성을 상세하게 해설하여 이해를 도왔다. 해외지표와 연계성 해설은 실제 경영환경에서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셋째, 산업 전반의 ESG 수준 제고를 위한 범용적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이다. 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평가·검증기관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ESG경영 수준 향상을 위한 방향성 제시에 초점을 두고 기업 스스로 ESG 경영 목표 수립이 용이하도록 길라잡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외 평가지표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가에 적절히 준비하고 답변할 수 있는 역량 확보에 중점을 뒀다. 중소·중견기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한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타개할 수 있도록 ESG 경영전략 수립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우선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27개 항목을 선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평가·검증기관은 ESG 평가 시 K-ESG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평가·검증기관의 니즈를 고려하여 기본 진단항목 외 대체·추가 항목 제시하였다. 평가 의뢰기업의 영위 산업과 생산제품 등에 맞춰 활용하면 된다.

2) 기본 진단항목 체계

가) K-ESG 가이드라인 항목 구성 개요

(1) K-ESG 가이드라인 분류 체계

K-ESG는 영역, 범주, 진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K-ESG는 모든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하면, 여러 조건에 불리하고 무리일 수 밖에 없는 중견·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으로 구분된다.

기본형과 중견·중소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다르다. 영역은 4가지 영역으로 같다. 범주는 기본형은 27개이지만, 중견·중소기업은 17개이다. 진단 항목도 기본형은 61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중견·중소기업은 27개이다. 이처럼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 만큼 현실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영역과 범주, 진단항목을 구분하고 지표를 추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4개 영역은 ESG 정의를 기반으로 했다. 비정형 데이터 발굴 및 수집은 기업의 성실한 공시에 의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ESG 관련 정보 공개여부 측정 항목을 추가하여, 정보공시(Public),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4개 영역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 대분류를 설정했다.

범주는 4개 영역을 기준으로 27개를 추출했다. 국내외 ESG 공시·평가 기준에서 공통으로 제시된 어젠다를 기반으로 설정했다. 조직이 ESG 경영을 통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가 설정 기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진단항목은 영역과 범주별로 나뉘지만 총 61개로 가이드라인 각 '범주'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정성·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세부 항목이다.

(2) 기본 진단 항목정의서 구성 체계

기본 진단 항목정의서는 몇 가지 부제들이 있다. '추가 설명', '용어 정리', '참고 자료'이다. 기업 맞춤형 ESG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표준모델에 대한 항목별 이해도가 높을 때 기회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다.

'항목정의서'는 조직의 ESG 성과를 진단하기 위한 항목 설명, 점검 기준 및 단계 등 진단에 대한 방향성과 예시를 제공한다. 항목정의서 목적은 기업 담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항목만 제시하면 그 범주를 유추함에 있어서 각자의 경험과 지식이 기초가 되므로 그 간극은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목표는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실행할 때 효과가 높아진다. 그런 목적으로 항목정의서가 있는 것이다.

'추가 설명'은 각 진단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한 ESG 경영 방향성과 성과 점검 기준에 대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일부 진단 항목에 따라서는 대체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근거를 설명한다. '용어 정리'는 항목정의서와 추가 설명에서 별도 기술이 필요한 용어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는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항목정

의서에 기술된 설명, 산식, 활용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 해외 유사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3) 추가 진단항목 정의서 구성 체계

‘추가 진단항목 정의서’ 구성 체계는 ‘추가진단 항목 정의’와 ‘활용방안’ 두 가지이다. 첫째, 추가 진단 항목 정의는 각 영역의 범주별로 산업과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는 글로벌 평가지표에 속하지는 않으나 ESG 경영의 추가적인 필요 요소를 제시,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단 항목을 담았다. 추가 진단항목의 활용방안은 세 가지이다.

첫째, 기본 진단항목의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 진단항목으로 대체 활용 가능하다. 기업마다 특수성이 존재한다. 특수성은 오히려 기본 진단항목 적용으로 평가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을 때 추가 진단항목으로 대체하여 평가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기본 진단항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업의 ESG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추가 진단항목은 기본 항목에 없는 내용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특수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림탄소흡수량 또는 고졸직원 채용과 같이 미래지향적 목표 설정에 활용이 가능하다.

나) K-ESG 가이드라인 기본 진단항목 정의서 구성

기본 진단항목 정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분류번호, 항목설명, 성과점검, 점검기준, 적용방안, 점검기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정의를 알아 본다. 먼저 ‘분류번호’는 ‘영역-범주-항목’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진단항목 분류를 위해 활용된다. 예를 들면 정보공시(P) 두 번째 범주의 2 번째 항목이라면 분류번호는 ‘P-2-2’로 표기된다. 둘째, ‘항목 설명’은 진단항목의 목적·내용·방법 등을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항목 설명이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하면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많아져 평가등급의 간극이 커질 수 있다. 평가의 공정성과 동질성, 더불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항목 설명은 필요하다. ‘성과 점검’은 항목을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원천’, ‘데이터 기간’, ‘데이터 범위’, ‘데이터 산식’을 제시하고 해당자료를 통해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 다음은 ‘점검 기준’이다. ‘점검 기준’은 ‘성과 점검’에서 확인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해당 조직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단계별 기준 제시하는데 보통 3단계에서 5단계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적용 방안’은 ‘점검 기준’으로 확인한 조직의 ESG 성과를 조직·항목·영역 상호간 비교 가능하도록 진단항목별 100점 기준으로 5단계, 혹은 3단계 배점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3~5단계 배점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외 ESG 평가기관에서는 1) 서열척도, 2) 등간척도(100점), 3) 비율척도 형태로 활용하기도 한다. ‘점검기준 유형’은 총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단계형 1’이다. 정성·정량 평가 기준에 따라 3단계에서 5단계까지 설정한다. 둘째, ‘단계형 2’이다. 산업 평균 및 추세를 비교하고 각각 점수를 부여한 후 산술 평균한다. 셋째, ‘선택형’이다. 제시된 요건 중에 해당 항목 수 만큼 수준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감점형’이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되는 항목 수 만큼 감점하는 방법으로, 추가 설명을 통해 ESG 성과 점검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3)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 체계

K-ESG 가이드라인은 기본형(4개 영역·27개 범주·61 기본 진단 항목)과 중견·중소기업용(4개 영역·17개 범주·27 기본 진단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2022년도말 발표 예정인 가이드라

인에 업종별까지 포함되면 씨줄과 날줄이 잘 어울려 현재보다 훨씬 더 편리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가)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 체계_정보공시(P)

(1) 기본형

정보공시(P)의 기본형은 3개의 범주에 5개의 진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주는 정보공시 형식·내용·검증에 집중되어 있다. 정보공시 형식은 ESG 정보공시 방식·주기·범위를 진단한다. 정보공시 내용은 ESG 핵심이슈가 무엇인지와 KPI가 진단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정보공시 검증은 말 그대로 ESG 정보공시 검증을 진단한다. 이와 같이 기본형의 정보공시는 얼마나 충실하게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항목으로 구성했다.

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 항목
정보공시(P)	정보공시 형식	P-1-1	ESG 정보공시 방식
		P-1-2	ESG 정보공시 주기
		P-1-3	ESG 정보공시 범위
	정보공시 내용	P-2-1	ESG 핵심이슈 및 KPI
	정보공시 검증	P-3-1	ESG 정보공시 검증

(2) 중견·중소기업

중견·중소기업용 정보 공시는 2개의 범주에 4개의 진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주는 정보공시 형식과 정보공시 검증이다. 기본형과 차이점은 정보공시 내용을 진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보공시 형식과 검증에 비해 내용의 중요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진단항목으로는 정보공시 형식은 기본형과 동일하다. 정보공시 검증도 같은 진단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 항목
정보공시(P)	정보공시 형식	P-1-1	ESG 정보공시 방식
		P-1-2	ESG 정보공시 주기
		P-1-3	ESG 정보공시 범위
	정보공시 검증	P-2-1	ESG 정보공시 검증

나)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 체계_환경(E)

(1) 기본형

환경(E) 부문은 9개 부문에 총 17개 진단항목이다. 평가하고자 하는 범주는 환경경영 목표, 원부자재, 온실가스, 에너지, 용수, 폐기물, 오염물질,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라벨링이다. 범주를 보면 제품 생산을 위해 원부자재에서부터 생산, 폐기까지 전 라인을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과정이 원가 상승요인이기에 기업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가격경쟁력으로 매출을 유지해 왔다면 더욱 걱정일 수 밖에 없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활용, 용수 정화시설, 폐기물 처리 등 모든 것이 자본력과 싸움이기에 더욱 힘들

다. 사실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을 지도 모른다.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환경경영 목표는 환경경영 목표 수립, 환경경영 추진체계의 항목으로 진단한다. 원부자재는 원부자재 사용량, 재생 원부자재 비율을 본다. 온실가스는 3개의 진단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 Scope2),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이다. 에너지는 에너지 사용량과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진단한다. 용수는 용수 사용량, 재사용 용수 비율을 보고,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과 폐기물 재활용 비율 2개의 진단 항목으로 되어 있다. 오염물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으로 평가하고, 환경 법·규제를 위반하는 지 여부와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을 평가하는 환경 라벨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중견·중소기업

중견·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려면 막대한 시설 투자에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중견·중소기업의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정부 지원 또는 협력업체와 공생관계에 의한 지원이 없다면 힘든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 또는 수입품과 품질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면 가격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견딜만한데 중견·중소기업 제품 중 품질 경쟁력에서 대기업이나 수입품을 능가할 수 있는 품목이 얼마나 될까 싶다. 환경(E) 부문의 시설투자는 원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원가 상승은 판매단가 인상을 단행해야 하는데,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보다 부정적일 확률이 높다. 기업 내부적으로 진통이 예상되는 항목이다.

중견·중소기업의 환경(E) 부문은 7개 범주에 9개 진단 문항이다. 범주에서 생산라인에 관련된 부분은 기본형과 동일하다. 다만,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라벨링은 제외다. 제품 생산과 직결되는 부분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제 분위기가 환경에서 만큼은 더욱 규율이 강화되는 추세이기도 하다. 특히 기후위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2021년도, 2022년도 기후의 변동성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7개 범주는 동일하지만 기본형은 7개 범주에 15개 진단 항목인데 반해 중견·중소기업은 동일한 7개 범주에 9개 문항이다. 진단 항목 6개를 제외시킨 것이다. 환경경영 목표는 환경경영 추진체계를 평가한다. 환경경영 목표 수립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원부자재는 원부자재 사용량이 진단항목이고, 재생 원부자재 비율은 보지 않는다. 온실가스는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 Scope2),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이 대상이다. 온실가스 배출량(Scope3)은 빠져 있다. 에너지는 에너지 사용량만 본다. 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은 진단 대상이 아니다. 용수는 용수 사용량만,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염물질은 기본형과 동일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진단한다.

다)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 체계_사회(S)

(1) 기본형

사회는 다소 익숙한 분야일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꽤 오랫동안 운

영해 온 기업들이 많고 사회적으로 익숙한 활동이기에 그렇다. ESG 평가에서 사회는 사회공헌을 비롯한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9개 범주에 22개 항목이다. 9개 범주에는 목표(1), 노동(6), 다양성 및 양성평등(3), 산업안전(2), 인권(2), 동반성장(3), 지역사회(2), 정보보호(2), 사회 법·규제 위반(1)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는 목표 수립 및 공시가 진단 항목이다. 노동은 6개 진단항목으로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정규직 비율, 자발적 이직률,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결사의 자유 보장이다. 다양성 및 양성평등은 3개의 진단 항목으로 여성 구성원 비율, 여성 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인 고용률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안전보건 추진체계와 산업재해율을 진단하는 산업안전, 인권정책 수립과 인권 리스크 평가를 진단하는 인권이 있다. 동반성장은 3가지 진단항목이 있는데, 협력사 ESG 경영, 협력사 ESG 지원, 협력사 ESG 협약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이 바로 공급망을 포함하여 ESG 경영을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급망까지 ESG 경영 평가가 확산되는 추세도 평가지표와 무관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전략적 사회 공헌과 구성원 봉사 참여이다. 디지털이 발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정보 보호이다. 정보 보호는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로 진단하며, 사회 법·규제 위반이 있다.

진단 항목 구성을 보면 기업 자체는 당연히 잘 해야 한다. 협력사와 지역사회까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할 뿐 아니라, 교육을 통한 구성원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여성과 장애인 등 그동안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었던 그룹에 대한 평등한 대우와 공정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보여 주고 있다.

(2) 중견·중소기업

중견·중소기업이 그나마 부담을 덜 수 있는 영역이 사회(S)일 것이다. 중견·중소기업도 알게 모르게 구성원이나 기업 스스로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산업안전은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도 시행하고 시설 보강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중견·중소기업의 사회(S)부문은 기본형 9개 범주 대비 5개 범주가 작은 총 4개 범주이다. 진단항목은 기본형 22개 대비 13개 항목이 작은 9개 문항으로 기본형 대비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영역이기도 하다. 중견·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당장 개선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영역, 발생 빈도수가 낮다고 판단되는 범주는 제외시켰다. 목표, 인권, 동반성장, 정보보호, 사회 법·규제 위반이 제외된 대상이다. 중견·중소기업의 범주는 노동(2), 다양성 및 양성평등(3), 산업안전(2), 지역사회(2)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은 기본형이 6개 진단 항목인데 비해 중견·중소기업은 정규직 비율과 결사의 자유 보장만 진단한다.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자발적 이직률,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와 같은 중견·중소기업에서 발생 빈도수가 낮거나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기 힘든 항목은 원천적으로 제외시킴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다양성 및 양성평등은 여성 구성원 비율, 여성 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인 고용률을 진단한다. 산업안전은 안전보건 추진체계와 산업재해율을 본다. 지역사회는 전략적 사회공헌, 구성원 봉사 참여가 진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 체계_지배구조(G)

(1) 기본형

이사회 구성을 비롯한 6개 범주의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오너 일가라는 용어 자체가 많이 사라졌다. 오너의 독재적 리더십은 언제든 언론에 노출되고 여론으로부터 못매를 맞는 시대가 되었다.

6개 범주는 이사회 구성(5), 이사회 활동(4), 주주권리(4), 윤리경영(1), 감사기구(2),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1)이다. 이사회 구성은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 성별 다양성, 사외이사 전문성이 진단 항목이다. 이사회 활동은 전체 이사 출석률, 사내이사 출석률,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 안건 처리 등 경영활동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진단한다. 주주 권리는 4가지 진단항목으로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총회 개최일,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배당정책 및 이행이다. 윤리경영은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를 잘하는지가 진단 대상이다. 감사기구는 내부감사부서 설치, 감사기구 전문성(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2개의 진단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이 있다.

(2) 중견·중소기업

범주는 기본형의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을 제외한 4개로 이사회 구성(1), 이사회 활동(2), 주주권리(1), 윤리경영(1)이다. 기본형의 이사회 구성이 5개 진단 항목인데 비해 중견·중소기업의 이사회 구성은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하나만 진단한다. 이사회 활동은 전체 이사 출석률, 이사회 안건 처리이다. 주주 권리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이고 윤리경영은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가 진단항목이다.

K-ESG가 굳이 중견·중소기업용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시한 이유는 뭘까?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함이다. 일반론에서 ESG 경영은 사업성과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증명되었지만, 중견·중소기업에는 사실상 부담이다. 비용과 인력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ESG 경영 추진을 위한 실질적 정보와 노하우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ESG 경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항목과 진단 기준에 대한 정보가 없어 ESG 관련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ESG 활동을 전개하고 그에 따른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 경영 도구로 활용케 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는 중견·중소기업의 ESG경영 추진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중견·중소기업의 ESG경영 추진을 위해 현실적 부담과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기본점검 진단항목을 선별했다. 과도한 투자비용(설비·인력 투자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SG경영 추진 및 개선이 가능한 기본 진단항목을 제시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의 ESG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향후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이 별도 개발될 예정이며, 업종별 가이드라인도 보완하고자 작업이 진행중이므로 기업 현실을 고려하여 진단항목 및 단계별 기준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항목은 기본적으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FG가 신설되었다. 평가는 기본평가와 심화평가로 구분된다. 기본평가는 가점 방식이고, 심화평가는 부정적 ESG 이슈에 대해 감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평가는 18개 대분류에 284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심화평가는 57개 평가항목이다. 기본평가와 심화평가 모두 합치면 18개 대분류에 341개 평가항목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FG)를 제외하면 기본평가와 심화평가 종합해서 11개 대분류에 223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MSCI보다는 훨씬 적지만 K-ESG에 비하면 평가항목이 상당히 많다. 평가지표 항목이 많다고 평가결과에 신뢰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항목 수보다 진단 항목의 질문이 얼마나 촘촘히 평가하고 세분화하느냐와 직결되는 질적인 부분이 보장될 때 평가결과 또한 보장받을 수 있다.

환경(E)의 기본평가는 3개 대분류 50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환경 관련 민감도별 분류를 한다. 민감도는 상·중·하로 구분한다. 그 다음 대분류이다. 대분류는 환경 경영, 환경 성과, 이해관계자 대응이다. 심화평가는 9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환경관련 법위반과 환경 사고 등이다

사회(S) 관련 기본평가는 4개 대분류에 52개 평가항목으로 이뤄졌다. 사회 부문은 산업분류를 대·중·소로 분류하는 WICS(Wise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에 의해 산업분류를 한다. 4개 대분류는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이다. 심화평가는 총 10개 평가 항목인데, 비윤리적 노동 관행, 산업재해 다발, 불공정 거래, 소비자권익 침해 등이 포함된다.

지배구조(G)는 우선 자산규모별로 분류한다. 2조원이 기준점이다. 2조원 이상과 2조원 미만으로 구분한다. 기본평가는 4개 대분류에 84개 평가항목이다.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감사기구, 공시가 대분류이다. 심화평가는 18개 평가항목인데 지배구조 관련 법 위반, 부적절한 주주총회 안건, 성과와 무관한 보수 인상, 지원성 내부거래 등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프로세스는 총 3단계이지만 실질적으로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데이터 수집이다. 방법론으로는 사업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거나 감독기구, 지자체 등의 발표 자료, 뉴스 등 미디어 노출 자료를 근간으로 한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기업별 800개 이상의 기초데이터를 수집한다. 총량적으로는 연간 50만개 이상의 기초 데이터를 축적한다.

둘째, '평가단계'이다. 평가는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평가와 심화평가로 구분된다. 기본평가는 ESG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에 집중하여 진단하고 검증한다. 심화평가는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높은 ESG 관련 쟁점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점검으로 국내 경영 환경을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셋째, '평가 검증'과 '피드백'이다. '평가 검증'은 정확한 정보 생산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검

증을 실시한다. 이해관계자에게 양질의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아울러, 웹기반 평가시스템을 통해 기업과 양방향 피드백을 실시하는 등 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은 자체적으로 ESG 평가를 실시한다. 국민연금은 ESG 평가결과를 종목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거나, 투자제한전략(negative screening)방법으로 투자후보군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기에 그 어느 평가기관의 평가지표보다 위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을 재산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수익을 증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보다 ESG를 추구한다는 것은 글로벌 자산운용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평가지표는 환경·사회·지배구조에 총 14개 항목에 61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은 3개 항목과 15개 평가지표, 사회는 5개 항목과 24개 평가지표, 지배구조는 6개 항목과 22개 평가지표이다.

환경(E)은 기후변화, 환경영향관리, 친환경 제품 개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기후변화는 온실가스관리시스템,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이다. 환경영향관리는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환경경영 목표, 청정생산 관리, 용수 사용량, 화학물질 사용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이다. 친환경 제품 개발에는 친환경 제품개발 활동, 친환경 특허, 친환경제품 인증, 제품 환경성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S) 5대 항목은 인적자원관리 및 인권, 산업안전, 공정거래, 제품안전, 정보보호이다. 인적자원관리 및 인권은 7개 평가지표이다. 급여, 인적자원 투자, 고용, 가족친화문화, 근속연수, 인권, 노동관행이다. 산업안전에는 안전보건시스템, 산업안전보건 전담 조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산재다발 사업장 지정이 포함되었다. 공정거래는 거래대상 선정 프로세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협력업체 지원활동, 하도급법 위반, 공정경쟁 저해 행위가 평가지표이다. 제품안전에는 제품안전시스템, 제품안전시스템 인증, 제품관련 안전사고 발생, 소비자 고충처리채널 운영 여부,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 보호에는 정보보호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인증, 정보보안 유출사고가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G)는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주주권리 향상, 이사회 구성과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감사제도, 관계사 위험, 내부통제와 준법이다. 주주권리 향상에는 경영권 보호장치, 주주의견 수렴장치, 주주총회 공시시기, 최근 3년내 배당내역이다. 이사회 구성과 운영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 구조의 독립성, 이사회의 사외이사 구성 현황, 이사회 활동, 이사보수 정책 적정성을 다루고 있다. 이사회 내 위원회에는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가 있다. 감사제도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율, 장기재직 감사(위원) 비중, 감사용역 비용 대비 비감사 용역비용 비중을 다루고 있다. 관계사 위험에는 순자산 대비 관계사 우발채무 비중, 관계사 매출거래 비중, 관계사 매입거래 비중이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와 준법에는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시스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 내부통제 준법경영 위반여부가 평가지표이다.